

부모 사별에 따른 대학생의 상실경험 연구*

Parental Loss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조 교수 양 성 은**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Assistant Professor : Yang, Sung-Eun

<Abstract>

This research reports on a qualitative analysis of email facilitated reflective dialogue with seven college students whose parent dies. The study was exploratory in considering cultural values on intact family and asked the question: What do children experience after parental death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with intra and extrafamily systems? Young adult children of single parent family expressed that they felt social pressure to practice filial piety toward their single parent. They made efforts to fulfill the social expectation and to achieve social desirability. Social stigma from extrafamily systems affected the experiences of the bereaved children. In terms of intrafamily system, young adult children tend to idealize their deceased parent. Single parents depended on the young adult children, which made parent-child relationship enmeshed or conflicting. The holistic view of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intra and extra family systems when understanding family loss experience of the bereaved young people.

▲주요어(Key Words) : 상실경험(loss experience),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

I. 연구의 필요성

사별(死別)이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뜻한다. 사별은 가족생활주기에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건으로서, 예견된 것이든 갑작스런 것이든 가족전체의 역동(family dynamic)을 깨뜨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Walsh와 McGoldrick

(1991)은 사별이야말로 가족이 적응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하는 경험이라고 역설하였다. 사별은 가족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실을 유발한다(Kubler-Ross & Kessler, 2000). 특정 가족원이 물리적으로 부재하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 구성원이 제공하던 경제적 수입의 상실, 정서적 지원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별은 남아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슬픔, 고독감, 분노, 죄책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신체적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다(Raphael, 1983). 사별로 인해 이전의 가족항상성은 상실되며, 새로운 적응을 위해서는 역할을 재조정하는 힘든 가족과업을 수행해야 한다(Davies et al., 1986).

사별이 가족에게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별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험을 다룬 국내 연구를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6-311-C00622).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6-311-C00622)).

** 주 저 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찾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가족원의 죽음이나 사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대동, 2004). 가족원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일상에서 배제하려는 문화적 규범은 사별 후 가족이 겪는 경험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한다. 통계청(2007)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체사망자는 243,934명으로 하루에 668명이 사망하였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고인 1명당 3명의 유가족을 가정할 때 일 년에 731,802명, 하루에 2,004명이 사별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별은 모든 가족이 언젠가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별을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생활의 일부로 인정하고 정상화(normalization)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사별 후 상실경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기능적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가족사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개인의 심리내적 적응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체계적 관점의 연구는 제한적이다. 진행된 연구들도 조사법에 의거해 한정된 양적정보만을 제공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질적접근을 시도하지만 사별가족에 대한 피상적인 기술(description)에 머물고 있어 심층적 이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사별 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사별가족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최근 30여 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죽음과 사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죽음학(thanatology)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형식적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 대학 내에서는 “사망과 임종(death and dying)” 관련 과목들이 활발히 개설되고 있고, 해마다 1,000여 개에 이르는 죽음 및 상실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김대동, 2004:2-3).

이러한 죽음학 관련 분야의 발전에는 임종과정의 심리적 변화를 단계화한 Kubler-Ross(1969)의 고전 “On Death and Dying” 이후, 이와 관련된 전문학술지들의 발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Death Studies, Mortality, Journal of Loss and Trauma,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등의 대표적 학술지들은 현재까지 죽음, 사별, 상실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양성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구에서는 가족, 친구, 친척 등 포괄적인 주요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사별 후 개인의 심리내적 적응에 초점을 두거나(Dutton & Zisook, 2005; Mercer & Evans, 2006; Michael & Snyder, 2005) 또는 전통적인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고인과의 유대가 사별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Field et al., 2005; Lalande & Bonanno, 2006; Stroebe & Schut, 2005)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사별대상을 잊고 보내버리기(“letting go”) 보다는 유대감을 지속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상실감으로 야기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특정 치료모델의 효과를 검증한 임상분야의 연구들(Boelen, 2006; Wagner et al., 2005)도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사별 후 병리적 문제없이 재적응하기 위해서는 생존부모의 온정적 태도와 일관된 훈육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Haine et al., 2006)도 있다. 특히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Silverman, 1994; Vachon & Stylianos, 1993)은 유가족이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이웃, 친척, 교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

문제는 죽음, 사별, 상실에 관해 증가하는 서구 논문들의 학문적 지향(orientation)이 사별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상호작용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앞서 열거한 관련 학술지나 선행 연구들 다수가 개인심리학 분야에 근거를 두면서 가족관계를 분석의 단위로 하기 보다는 개인의 내적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별의 대상을 혈연, 입양,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구성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구나 동거파트너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별 대상을 특정 가족구성원으로 제한하고, 가족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체계론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사별가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가족원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사별 후 가족이 겪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어렵게 해왔다. 이는 죽음, 사별, 상실에 관한 연구가 서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으로도 입증된다. 사별에 관한 국내 연구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특히 가족관계적 측면을 다룬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족학적 지향을 가지고 중노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기숙, 2001)하거나 중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연구한 논문(유희옥, 2004)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사별 후 상실경험이 아닌 임종자를 중심으로 사별 전 준비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사별을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나마 목회상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홍근, 1996; 전요섭, 2000; 정정숙, 1996).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목회상담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사별 가족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보다는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김홍근, 1996; 168)”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족 사별 후 상실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정(김오남, 2005)과 사회적응력 향상(강기정, 2005; 조성연, 2003), 한부모가족과 청소년자녀의 갈등(김오남, 2004),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조성연, 2004) 등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사별과 이혼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은 채 한부모가족의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녀의 관점을 간과해왔다. 한편, 전미영(2000)은 가족 자원이 사별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접근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서구의 측정도구로 수량화된 연구대상의 사별 경험이 얼마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와 달리 가족 사별에 대한 질적 접근으로서 김상우(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사별을 겪은 9명의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사별대상이 각기 다르고(부친, 모친, 배우자), 사망원인도 자살, 사고, 병사 등으로 상이한 것은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에서 방법론적 취약성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죽음, 사별, 상실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학문적 지향이나 방법론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체계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별 후 상실경험을 관계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가족의 사별경험을 서구의 이론모델에 끼워 맞추기 보다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한 귀납적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별 후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사별 한부모가족의 관계성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사별 한부모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사별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족관계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를 자녀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인식론적 정당성

가족 사별 후의 경험과 같이 국내 선행연구의 부재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적 모델이 미처 구축되지 못한 경우, 그 특정 현상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시도(“let their voices be heard”)가 우선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질적연구방법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순간을 기술하며(Denzin & Lincoln, 2000:3), 이들이 특정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를 명료화함으로써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동기, 정서, 신념, 가치관 등을 이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데 목적을 둔다(Schwandt, 1997).

질적연구방법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또는 “가족원의 죽음”처럼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주제를 탐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Stern, 1980). 또한 기존의 실증주의적(positivistic)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방법을 통해서 관찰하기 어려운 인간의 감정, 태도, 사고과정, 관계성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개방질문을 통해 이들의 내적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구의 기존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로 한국 가족의 사별경험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양되어야 하며, 한국의 독특한 가족가치관, 부모-자녀관계, 죽음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규범 등을 고려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서구 이론의 검증에 위해 통계적 기술에 의존한 피상적 수량화 대신 맥락중심 관점을 바탕으로 실제 한국 가족이 어떻게 일상에서 사별 후 한부모가족을 경험하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통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을 취했다. 현상학적 접근이란 동일한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 경험이 가진 핵심(essence)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철학적 관점이자 방법이다(Van Manen, 1990).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특정 사회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술하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사별을 경험한 자녀가 가족외체계 및 내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사별대상을 부모로 한정하고, 한쪽 부모와의 사별을 겪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가족의 사별 대상은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지만, 부모 사별은 다른 대상에 비해 보편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노화가 아닌, 소위 평균수명을 다하지 못한 부모의 죽음은 가장 보편적 경험에 가장 특수한 상실감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평균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한쪽 부모가 사망한 가족의 대학생 자녀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부모 사별에 관한 면접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성인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갖는 발달단계의 특성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근거가 되었다. 대학생 자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긴장관계에 놓였던 부모-자녀관계를 해소하고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한다(정현숙 등, 2002: 243). 학생 신분이기에 아직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부모를 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지원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사별 한부모가족의 대학생은 사별부모와 성숙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생존부모와 맺는 관계가 양부모가족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7명(여자 3명, 남자 4명)이며, 이들의 연령범위는 만 23세~만 25세였다. 자료수집시 이들은 모두 서울 및 광역시 소재 4년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1명은 어머니를 사별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아버지를 사별하였다. 부모 한쪽을 사별한 후 평균 9.6년이 경과되었으며, 자료수집시 모두 한부모가족의 형태였다. 평균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中下) 수준으로 추정된다.

언급할 것은 연구초기에 참여자 선정 준거에 맞는 대상 10명을 섭외하였으나 3명이 탈락했다는 점이다. 연구주제가 야기하는 스트레스가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저하시킨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를 철회한 대학생들은 사별한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힘들어 했으며, 구체적으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아버지는 너무나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라서 평소에 아버지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에 끝까지 참여한 대학생 7명의 면접을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Email Facilitated Reflective Dialogue(McAuliffe, 2006)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FRD는 컴퓨터보조 인터뷰(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 methods)의 한 종류로서, 면접자와 면접대상자가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하면서 연구하는 현상에 대해 묻고 답하며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De Leeuw & Nichollas II, 1996; McAuliffe, 2003). EFRD의 장점은 면접대상자에게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면접대상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응할 수 있는 융통

성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높은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자기노출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EFRD를 자료수집방법으로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연령층에 있어 이메일이 주요한 의사통신 수단으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20대의 96.0%가 이메일 ID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김은미, 2005). 둘째, EFRD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족 사별과 같이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에 특히 효용성이 높다. 낯선 연구자와 마주앉아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대면인터뷰 대신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사적경험에 대해 보다 솔직한 답변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Egan, 2006). 셋째, EFRD는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사별과정에 대한 회상, 사별이 갖는 의미, 사별 후 한부모가족의 경험 등 인지적 과정에 중점을 둔 본 연구주제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별 한부모가족 대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사별 한부모가족 대학생을 알고 있는 연구자의 지인들은 이들에게 연구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연구자가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연구자는 통화를 허락한 잠재적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 연구방법, 비밀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참여의사에 대한 확답을 얻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를 만날 필요가 없으며, 이메일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였다. 3개월 동안 연구자가 7명의 연구참여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은 모두 138통이다. EFRD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 질문을 먼저 하고 정서적 표현 질문을 후에 실시하였고, 질문의 수는 이메일 1회 당 1~2문항으로 제한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답장에 반응하는 시간, 답장의 분량, 자기노출 정도 등에 유의하면서 후속 질문을 조절하였다. EFRD를 위한 구체적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하게 되었는지, 부모의 사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망한 부모와 이전의 관계는 어떠했으며 돌아가신 후 어떤 느낌을 갖는지, 부모의 사망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남은 가족들, 친구, 친척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부모와 사별 후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Creswell(1998:147-150)이 제안

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전체 면접 자료에서 부모와의 사별 및 사별 후 한부모가족의 경험과 관련된 주요 진술문들을 모두 목록화하는 자료의 수평화(holizonalization of the data) 단계를 거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진술문들을 의미단위로 범주화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를 기술(textural description)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구조적 기술(structural description)로서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나온 결과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별 한부모가족이라는 현상의 핵심을 도출하여 통합적인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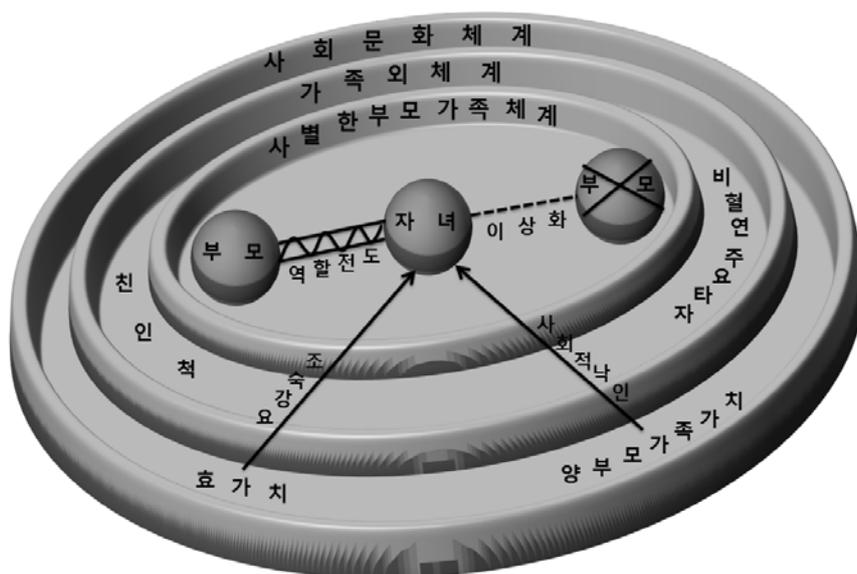
Creswell(1998: 194)은 질적연구가 신뢰롭게 수행되었음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과정의 검증(verification)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검증전략으로 사용하였다. Miles와 Huberman(1994:134-137)은 부정사례분석을 설명하면서, 잠정적인 이론 모델이 성립된 후 그 이론모델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치되는 사례를 발견하여 이론모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리적 연계를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분석 단계에 따라 사별 한부모가족의 경험을 개념화하는 잠정적 이론모델을 도출한 후, 이 모델에 의거하여 역(逆)으로 전체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Guba와 Lincoln(1985)이 제안한대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레포 형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개입을 함으로써 질적연구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아버지 사별과 어머니 사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보다는 부모사별의 공통경험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의 EFRD 내용이 사별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는 공통의 중심주제들로 일관되게 모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사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도 어머니 사별 사례가 전체 결과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를 사별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모사별 경험의 핵심(essence)을 <그림 1>로 표상화 하였다. <그림 1>을 구성하는 하위주제들을 가족외체계 및 가족내체계로 나누어 아래에 기술하였다.

하위주제들을 나타내는 인용문에는 이를 언급한 연구참여자의 번호나 가명을 붙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각 인용문이 연구참여자들의 합의된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에게 번호나 가명을 사용해 꼬리표를 붙이는 것(labeling)이 질적연구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 SSCI 등재학술지인 Qualitative Health Research (<http://qhr.sagepub.com/>)에서도 인용문에 연구참여자의 번호나 가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림 1>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모사별 경험의 핵심주제

1. 가족외체계

1) 조숙(早熟)에 대한 강요

가족외체계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성숙을 재촉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인척, 이웃, 부모의 동료 등은 연구참여자에게 혼자 된 부모의 슬픔을 강조하면서 조숙에 대한 강요를 한다. 이는 사별 직후 장례식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데, 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 한쪽을 사별한 연구참여자들도 “어른스럽게 행동해야한다”고 의식하게 된다. 생존부모를 배려하면서 조숙을 강조하는 가족외체계의 압력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사별한 상실감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며,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애도기간을 단축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걸 알았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슬픈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울었습니다. 제가 평평 울 수 있었던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사람들은 “네가 울면 엄마가 더 많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엄마가 걱정되어 잘 울지 못했습니다.

친인척 및 비혈연주요타자들(이웃, 동료, 친구 등)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인 효를 실천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사별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 홀로 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사별한 후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에 더해 가족외체계로부터 오는 효도에 대한 강조로 이중부담(double burden)을 느낀다고 고백하였다.

제가 장남에 장손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 어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집안에 남자가 저 혼자뿐이어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 1~2년간은 어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밖에 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장남, 장손이라며 당부하셨던 말씀들... 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지... 아버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된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장손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가치관이랄까 그런 게 틀렸던 것 같습니다.

2) 사회적 낙인을 통한 간접적 규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아직까지 양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를 규범가족으로 간주한다. 가족외체계는 양부

모가족 가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형성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버지 안계시다고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도, 만만하게 보는 것도 싫었어요. 만만하게 볼 거라고는 사실 첨에는 생각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없는 과부도 그렇고 아버지 없는 자식도 그렇고,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고요. 어머니는 아직도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가셨다고 말하세요.

연구참여자들은 양부모가족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만 “역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애들이 버릇없고 맘대로 한다”는 식의 평가에 민감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평가를 인식한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착한 아들이 되고 남들에게도 착한 이미지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박탈을 경험한다고 토로하였다.

아버지가 안 계신 점이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요. 근데 이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철없이 놀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한번 쯤 “날라리”들과 놀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노는 청소년을 보면 나도 저렇게 놀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홀로 계시는 어머니 욕 안 먹게 하려고 사고 한번 안치고 학생의 신분엔 어긋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대신 해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할머니나 어머니께서는 “네가 잘해야 된다. 못하면 홀어미 자식이라고 보여진다”고 자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 행실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인식한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모두가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에 담대해진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친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걸 조금 일찍 경험한 것 뿐”이라는 태도에 근접하고 있었다.

이제는 누가 부모님에 대해 물어오면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말씀드려요. 부끄러워 할 일도, 숨겨야 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말을 들은 상대방이예요. 잠시 머뭇거리

다가 “그랬냐”고, “몰랐냐”고 말을 해요. 정작 저는 별로 아무렇지 않는데 말이예요. 그냥 살짝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학창시절 때 가정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 가정형편을 기술하라는 거 그런 점이 싫었죠. 사회적 편견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서 그런 얘기들을 안 꺼냈죠. 괜히 양부모 살아계신 친구들 앞에 위축이 되고 말이죠.. 나이를 먹다보니 솔직해졌다고 할까요. 당당해진 것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운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 장남인 제가 아버지가 없다고 위축이 되면 어머니의 노력이 격하되는 거 같아 저부터가 당당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들을 당당히 하다 보니 한층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에는 이렇게 당당히 말을 못했을까 아쉬움도 남고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면 웃음이 다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2. 가족내체제

1) 사별부모에 대한 이상화(理想化)

연구참여자들은 사별부모에 대해 죄책감, 후회, 원망 등의 복합적 감정을 표현했는데, 가장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었다. 특히 사망 전에 갈등적인 가족관계를 가졌을지라도 연구참여자들은 사별부모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강조하며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정적 사건을 망각하고 긍정적 사건을 기억하려는 방어기제 때문일 수도 있고, 갈등관계였던 대상과 화해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려는 의식적 노력일 수도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무의식적 체념일 수도 있다. 사별부모에 대한 이상화는 그리움과 죄책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족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저는 항상 엄마 편이었고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버지라도 살아계셔주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제가 미워했던 아버지지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우선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살아계실

때는 많이도 미워했는데, 이젠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외롭게 해드린 것이 너무 죄송할 뿐이에요. 또 아버지와 좋았던 추억들이 생각나서 보고 싶어져요. 아버지가 아파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면 제 맘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거창하게 효도할 것도 없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모습, 나중에 잘 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없어서 슬퍼져요.

술에 취하면 한탄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스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생각하면 좋은 모습이 더 많이 기억나요. 나쁜 기억은 그냥 하나로 뭉쳐져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무서웠다”라고 생각되고요. 미운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버릇없이 굴면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것이 아버지였으면 하고 생각하는 데 안 계시는 게 서운해요.

2) 생존부모와의 역할전도

부모사별 후 자녀는 가족체계 내에서 지위의 변화를 경험한다. 생존부모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기면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녀를 의논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생존부모의 의존이 증가할수록 자녀는 유사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생존부모에 대한 책임감도 가중된다.

큰 결정거리를 제가 아버지 대신 엄마와 상의하게 된 위치에 놓이게 된 게 달라진 점이지요. 엄마는 사별하신 후 집에 있는 큰일들을 대부분 저랑 상의하고 그러세요. 집안 친척들 간에 돈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상의하고, 엄마 직장에서의 직급 문제라든지, 생활비 배분 같은 것들, 동생 교육 같은 것도 저랑 많이 상의하고 그러세요. 옛날보다는 저랑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지요. 엄마가 힘든데도 바쁘게 살려고 하시는 거 보면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버지를 잃은 저보다는 배우자를 잃은 아픔이 더 클거란 생각에 안쓰럽고 그래요.

생존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고 밀착할수록 부모-자녀관계에서 역할전도(role reversal)가 일어날 가능성도 증가한다. 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맞물려 연구참여자들은 “자식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생존부모를) 보살펴야한다”는 강박적 다짐을 반복하기도 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존부모에게 빨리 효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 미안함, 죄책감

등을 표현하였다. 부모의 “보호자”가 되려는 시도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야기한다.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제가 어서 빨리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해져요. 지금 어머니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구요. 제 친구 어머니들은 남편이 벌어드주는 월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삶 누리면서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서 힘든 일을 하셔야한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고생하신 거 다 갚아드리고 남편보다 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어요.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자식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른 성공해야한다는 것, 짐을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해요.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엄마를 보면 늘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취업을 해서 엄마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전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고 작년에 A대에 다시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까먹고 해서 지금 엄마가 더 힘드신 거 같아요... 부담감 같은 건 늘 가지고 있어요. 특히 등록금 낼 때요. 엄마는 학교에서 등록금 받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계세요. 저번 학기처럼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제가 알바해서 돈을 모아 냈어요. 엄마한테 부담될까봐서 혼자 돈 모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밀착되면서 경계선 설정 문제가 야기되고, 부모-자녀의 역할전도가 강화될수록 자녀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대학생인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고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다. 그러나 사별 이후 지속된 생존부모의 의존 때문에 청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생존부모는 자녀가 소원해지는 것에 분노를 표시하며, 이를 견디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부모의 밀착과 자신의 발달과업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가 심화되면, 부모-자녀관계에 갈등이 심화되며 일시적 단절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머니는 “너희들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거나 “엄마 신경 쓸 것 없이 너희 갈 길 찾아가라”면서 저희들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저희에게 많이

의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는 11시가 다 돼서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자식이 되가지고 집에 혼자 있는 엄마에게 저녁은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며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화가 나면 “남편복 없으니 자식복도 없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자식 다 필요 없다면서 신세한탄으로 울면서 끝이 나요. 진심이 아닌 건 알지만 정말 듣고 있는 순간에는 너무 속이 상해요. 정말 저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시면 정말 저는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심란해져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제가 미리 어머니 기분을 살피고 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일찍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혼자 계시면 외로워하실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집을 비우게 되는 MT 같은 것도 안 가게 돼요.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우선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는 외로워하시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후회하지 말자”는 결심을 했는데, 먼저 대화하기, 아버지에게 대해서 알고 가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옆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예전과 달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데 자주 싸우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 크게 의지하시는 구나 하고 느낄 때도 많고요. 그러다보니 정작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제 역할감정도 큰 편입니다. 아버지가 용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다툼이 있어 근 한 달간 연락도 끊겨서 불안합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갑자기 제 여자 친구에 대해 심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첫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여자 친구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이러실 때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V. 논의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사별이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사별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외체계 및 내체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자 대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상학적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중요시되는 효 가치와 양부모가족 가치가 사별 한부모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 가치와 양부모가족 가치는 가족외체계인 친인척 및 비혈연주요타자들에 의해 전수되고 강화된다. 사별로 인해 가족이 외체계와의 연계를 상실하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별가족이 여전히 개방체계로서 외체계와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가족체계 내의 구성원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외체계는 사별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생존부모를 위해 “효도하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때문에 사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자신의 발달단계보다 앞선 과업을 수행해야하는 부담감을 느낀다. 부모사별을 경험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수행해야할 역할을 강조하는 서구(Haine et al., 2006; Silverman, 2000)에 비해 한국사회는 부모의 의무 보다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정계숙 등, 2007: 35)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외체계는 양부모가족 가치를 강화하면서 한부모가족을 비규범적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사별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사회적 낙인을 의식하여 스스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서구 연구들(Silverman, 1994; Vachon & Stylianou, 1993)이 부모사별로 인한 사회적 지지나 동정적 반응을 언급하는데 비해 양부모가족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맥락에서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자의식이 민감하게 표출되었다.

친인척 및 비혈연주요타자들이 영향력 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도 서구 선행연구들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이는 핵가족 중심의 서구와 달리 아직까지 확대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맥락의 특성을 보여준다. “주위 어른들”로 대표되는 비혈연주요타자들도 한부모가족 자녀를 규제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가족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짓는 경계가 서구만큼 명백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별 한부모가족체계 내에서는 자녀가 사별 부모를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생존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별이 가족내체계의 평형을 깨뜨려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저하시키고 응집력을 낮춘다는 결과(전미영, 2000)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별 한부모가족 자녀와 생존부모 사이에 과도한 밀착이 나타났다. 생존부모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의존을 보이면서 생존부모-자녀관계에 역할전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생존부모와 과도한 밀착은 사별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며, 때로는 갈등이나 단절을 유발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학생 자녀만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가족 전체의 역동을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자녀의 관점만을 분석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한부모까지 자료수집에 참여시킨다면 가족역동의 다면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별대상에 따른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별부모의 성별이 야기하는 한부모가족 경험의 차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부장주의가 아직 실존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상 사별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이 상호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사별부모 및 자녀의 성차에 대한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점은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별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험을 탐색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심리학이나 목회상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족관계적 측면을 간과한데 반해 본 연구는 사별이 “전체로서의 가족”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사별 한부모가족의 경험에 대한 귀납적 이론모델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사별가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주제와 변인을 다루는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의 방법론적 공헌점은 Email Facilitated Reflective Dialogue라는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대면인터뷰가 지닌 한계를 넘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면인터뷰는 자기노출을 꺼려하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민감하고 사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솔직함을 담보할 수 없었다. 물론 EFRD는 면접대상의 표정, 몸짓, 정서적 표현 등을 관찰하여 비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FRD는 대상 연령층에 대해 높은 접근성을 가진 의사소통 수단이며, 면접대상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높은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기노출을 증가시키며, 반성적 사고를 요하는 인지적 정보를 획득할 때 효용성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의 실천적 공헌점은 본 연구결과를 사별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 사회적 압력, 가족체계내의 경계선 설정 문제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정보를 바탕으로 사별 한부모가족의 변화된 가족관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2005).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가정학회, 43(9)**, 15-26.
- 김대동(2004).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우(2003). 죽음으로 인한 일상적 삶의 위기와 파괴. **사회조사연구, 18**, 133-157.
- 김오남(2004).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85-118.
- 김오남(2005).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가족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3(1)**, 129-144.
- 김은미(2005). **IT와 개인 의사소통 체계의 변화: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홍근(1996). 임종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 **한세대학교 교육논총, 9**, 167-195.
-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5).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유희옥(2004). **중노년기의 죽음 불안태도: 내세관, 죽음준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숙(2001). 중, 노년기 가족 대상의 "죽음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적 고찰(1).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1)**, 1-14.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미영(2000). 가족 사별 후의 슬픔 경험, 가족의 강인성 및 관리자원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6)**, 1569-1579.
- 전요섭(2000). 상실 가족의 심리이해와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7**, 313-341.
- 정계숙 · 김명애 · 김혜금 · 문혁준 · 심희옥 · 안효진 · 양성은 · 이정희 · 이희선 · 정대회 · 제경숙 · 한세영(2007).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 정정숙(1996). 임종 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상담과 선교, 4(1)**, 43-64.
-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정현숙 · 유계숙 · 어주경 · 전해정 · 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 조성연(2003).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방법.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579-593.
- 조성연(2004).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5-80.
- 통계청(2007).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결과**. 통계청.
- Boelen, P.(2006).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omplicated grief: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case description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 1-30.
- Chan, C. L. W., Chow, A. Y. M., Ho, S. M. Y., Tsui, Y. K. Y., Tin, A. F. T., Koo, B. W. K., & Koo, E. W. K.(2005). The experience of Chinese bereaved persons: A preliminary study of meaning making and continuing bonds. *Death Studies, 29*, 923-947.
- Creswell, J. H.(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 CA: Sage.
- Davies, B., Spinetta, J., Martinson, I., McClowery, S., & Kulenkamp, E.(1986). Manifestations of levels of functioning in griev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7*, 297-313.
- De Leeuw, E. & Nichollas II, W.(1996).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data collection: Acceptance, data quality and cost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4)*, www.socresonline.org.uk/socresonline/1/4/leeuw.html.
- Densin, N. K. & Lincoln, Y. S.(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 CA.: Sage.
- Dutton, Y. C. & Zisook, S.(2005). Adaptation to bereavement. *Death Studies, 29*, 877-903.
- Egan, J.(2006). Email Facilitated Qualitative Interview (EFQI) with traumatic rain injury survivors: Using new technologies to access the voices of the excluded. *7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f Advances in Qualitative Methods*, p. 183.
- Field, N. P., Gao, B., & Paderna, L.(2005). Continuing bonds in bereavement: An Attachment theory based perspective. *Death Studies, 29*, 277-299.
- Guba, E., & Lincoln, Y.(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Haine, R. A., Wolchik, S. A. Sandler, I. N., Millsap, R. E., & Ayers, T. S.(2006). Positive parenting as a protective resource for parentally bereaved children. *Death Studies, 30*, 1-28.
- Kubler-Ross, E.(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N.Y.: Prince-Hall, Inc.
- Kubler-Ross, E. & Kessler, D.(2000). *Life lessons*. New York, N.Y.: Scribner.
- Lalande, K. M. & Bonanno, G. A.(2006). Culture and continuing bonds: A prospective comparison of berea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ath Studies, 30*, 303-324.
- McAuliffe, D.(2003). Challenging methodological traditions: Research by email. *The Qualitative Report, 8(1)*,

- <http://www.nova.edu/ssss/QR/QR8-1/mcauliffe.html>.
- McAuliffe, D.(2006). Challenging methodological traditions: Email-facilitated reflective dialogues. *7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f Advances in Qualitative Methods*, p. 183.
- Mercer, D. L. & Evans, J. M.(2006). The impact of multiple losses on the grieving proces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 219-227.
- Michael, S. T. & Snyder, C. R.(2005). Getting unstuck: The roles of hope, finding meaning, and rumination in the adjustment to berea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Death Studies*, 29, 435-458.
-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2nd ed.)*. Thousand Oak, CA: Sage.
- Raphael, B.(1983). *The anatomy of bereavement*. New York, N.Y.: Basic Books.
- Schwandt, T. A.(1997).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Shuchter, S. R. & Zisook, S.(1993). The course of normal grief. In M.. S.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Eds.), *Handbook of bereavement*(pp. 175-19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verman, P. R.(1994). Helping the bereaved through social support and mutual help. In I. B. Corless, B. B. Germino, & M. A. Pittman (Eds.), *A challenge for living* (pp. 241-257). Boston, MA: Jones & Barlett.
- Silverman, P. R.(2000). *Never too young to know: Death in children's liv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tern, P. N.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Image*, 12, 20-23.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 CA: Sage.
- Stroebe, M. & Schut, H.(2005). To continue or relinquish bonds: A review of consequences for the bereaved. *Death Studies*, 29, 477-494.
- Vachon, M. L., & Stylianos, S. K.(1993).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bereavement. In M. Stroebe, W. Stroebe, & R. O. Hansson (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397-410).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of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N.Y.: The State University of N. Y. Press.
- Wagner, B., Knaevelsrud, C., & Maercker, A.(2005). Internet-based treatment for complicated grief: Concepts and case stud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0, 409-432.
- Walsh, F. & McGoldrick, M.(1991). *Living beyond loss*. New York, N.Y.: Norton.

접수일 : 2008년 05월 28일

심사일 : 2008년 08월 19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29일